

## 地域開發學科의 과제와 교육 방향

洪 起 容  
(檀國大 地域開發學科)

### 1. 머리말

2차 세계 대전 이후 社會(應用)科學 학문 성향의 하나는 상아탑적인 理論 위주의 展開로부터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應用社會科學으로의 발전 성향을 지녀왔다고 여겨진다. 특히 戰後 復舊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개입에 의한 科學적이고 體系적인 社會 發展의 意志는 많은 정책가들에게 이러한 학문 성향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 현상에 대한 理論的 現實化를 위한 有關 학문 분야들끼리의 統合 내지 理論과 方法의 相互 應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세기 초 건축학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都市設計(urban design) 理論은 사회과학 이론에 접합된 都市 및 地域計劃(urban and regional planning) 理論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경제 개발 계획과 사회 개발의 열기는 開發計劃에 대한 많은 社會的 需要를 창출하였다. 즉 이때 전개된 새마을 운동의 실천에 따른 그 理論的 展開과 더불어 전문 요원의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토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國土 開發理論의 도입은 급격한 社會的 需要에 부응된 학문적 전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開發 需要를 충족시키고 지역 개발에

대한 理論 發展과 더불어 인력 공급을 위하여 탄생된 學科들이 地域社會開發學科와 地域開發學科이다. 두 學科의 설립 목적은 거의 동일하고 시대적으로 볼 때도 동시에 설립되었으나 그 학문적 성격은 전혀 달랐다. 즉 地域社會開發學科가 社會開發에 초점을 둔 社會變化 促進者(changing agents)의 양성에 있었다면 地域開發學科는 효율적인 地域空間 計劃과 그 開發 管理에 연구 목적을 둔 計劃家의 양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地域開發學科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양성된 인력을 制度的으로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의 開發 需要와 열기는 人力 活用の 制度化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에 일하고 있으나 학문적 배경이 다른 이 분야의 관료들마저도 地域開發 人力 活用に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고답적인 사회 환경 때문에 학문 자체는 물론이고 人力養成 方向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地域社會開發學科(韓南大 등)가 地域開發學科로 改名 하였으며 어떤 大學(成均館大, 東國大, 濟州大, 慶尙大 등)은 아예 社會學科로 바꾸어 버렸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학문으로서의 地域開發學科의 성격을 照明해 보고, 學科가 당면하고 있는 課題를 外國의 大學과 비교 분석해 보며 우리나라 地域開發學科가 나가야 할 教育方向과

그 課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2. 學問的 性格

地域開發學의 학문적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국의 學問 分類에 의하면 本 學科와 유사한 학문 분야는 있으나 地域開發學으로 분류된 영역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地域은 자연과 사회 현상이 結合된 複合的인 有機體이기 때문에 地域을 하나의 독립된 行爲 客體로 취급하여 地域 空間 構造, 지역간 作相互作用 및 지역의 諸 行態 등을 지역개발학에서는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룬다. 지역개발학에서는 지역을 하나의 生命體的인 有機體로 생각하여 지역의 行爲 現象과 구조적 특징을 밝히며 사회·경제 및 정치적 측면에서의 지역을 연구하는 地域學도 지역개발학의 중요한 基礎科學 분야이다. 아울러 地域學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基礎分野에서 究明된 諸 現象과 理論을 토대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政策과 計劃을 수립하는 데 쓰여지기 위함이다. 따라서 應用社會科學으로서의 地域開發學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地域政策과 計劃을 效率的이며 衡平의 調和 위에서 진척 국가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計劃을 樹立, 實踐하는 특수한 學問領域이다.

따라서 地域開發學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諸 現象을 研究·實踐하는 社會科學이므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계획하며 政策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基礎理論으로서 經濟學, 地理學, 社會學을 비롯하여 都市設計에서 취급하고 있는 工學的 計劃 理論을 섭렵하고 있다. 지역 문제는 그 자체가 지니는 多樣性과 지역의 特殊性 때문에 접근하는 학문 분야 역시 複合的이다. 종합 사회과학으로서의 地域開發學은 다루고 있는 지역 문제의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분야는 地域을 이해하고 지역의 諸 現象을 분석하며 연구하는 基礎理論 분야, 둘째로는 이러한 기초 자료와 이론을 토대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應用 분야가 있다.

地域開發學의 기초 이론 분야로는 ① 경제 이

론에 空間 概念을 도입한 地域經濟 및 都市經濟, ② 지역의 諸 現象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統計 및 計量分析理論, ③ 지리학에 학문의 바탕을 둔 立地理論, 都市論 및 定住體系, ④ 社會學의 人口移動, 社會開發, 社會福祉 및 社會變動論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역개발학의 應用 및 方法論的 분야로서는 ① 政策學 부분의 意思決定 과정인 地域政策, 政策分析 및 事業管理와 評價를 비롯하여 ② 체계적이고 조화 있는 지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計劃理論과 그 技法, ③ 지역 문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土地利用, 交通計劃, 住宅政策 및 環境管理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地域開發學은 實踐 위주의 사회과학으로 落後 地域開發, 地域均衡開發과 地域成長, 地方化와 定住圈 및 地域潛在力 向上을 위한 주민 참여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地域開發學의 학문적 성격을 구태여 기존 학문 분야와 연결시켜 究明해 본다면 가장 유사한 분야로 都市 및 地域計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역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都市 및 地域計劃의 학문적 전개 과정 역시 복잡하였다. 즉 計劃學(planning education)을 처음 실시하였던 영국은 土木工學徒들이 都市設計에서 필요한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援用하였으며, 그 후에 地理學者들의 脈을 달리한 도시 및 지역 계획을 발전시켰다. 미국 역시 영국과 비슷한 전개 과정을 밟아 왔으나 미국의 지역 문제는 국토가 험소하고 자원이 비교적 빈약한 나라와는 그 접근 방법을 달리하였다. 미국의 지역 문제는 자원이 빈약하고 失業率이 높은 落後 地域과 인구 이동, 산업과 공공 서서비스의 立地 및 地域間 生産 要素들의 交易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計量的인 經濟學的 접근 방법에 그 초점을 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성장·발전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地域學(regional science)은 이러한 학문 성향을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지역 계획은 그 학문적 특성 때문에 大學院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現職教育(in-service training) 형태로 이론 개발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왜냐하면 計劃 理論과 實際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有關 基

礎 학과목을 먼저 履修해야 할 뿐만 아니라 人力 需要 역시 보다 전문적이고 迅速한 大學院 學歷의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學部 수준에서 지역개발학과 유사한 都市 및 地域計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3. 教育 現況

#### 1) 設置 現況

地域開發學科가 4년제 정규 대학 課程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設置된 곳은 1972년의 東亞大로 개설되었다가 1974년에 다른 學科로 바꾸어 버렸으며, 그 후 정규 課程으로는 1975년 檀國大에 처음 개설되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그 뒤 여러 大學에서 地域開發學科 또는 地域社會開發學科로 탄생되었다. 그리하여 地域開發學科는 7개 大學, 地域社會開發學科는 3개 大學에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10개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특수대학원으로서 韓南大와 全州大의 地域開發大學院을 비롯하여 環境大學院과 社會開發大學院 및 行政大學院에서 地域開發(計劃)學科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學部の 地域開發學科는 그 소속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과 관심 분야에 따라서 여러 大學에 소속(주로 法政系, 商經系)되어 있으며 學位 역시 크게 나누어 行政學士와 經濟學士로 구분되어 수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地域開發學科가 우

리나라에 도입될 때부터 잉태하고 있었던 문제로 전공 교과목은 각 대학별로 유사하게 과해져 더라도 就職과 관련되어 많은 대학에서 經濟學士를 수여하고 있으며 소속 대학의 人的 資源에 따라 소속 대학이 달라지고 있다.

#### 2) 教科課程

앞서 學問의 性格에서도 언급했듯이 地域開發學科의 교과과정은 크게 나누어 基礎理論 영역과 應用 및 方法論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大分類는 다시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뒤의 <표 2>와 같다. 즉 10개 大學에서 서로 다른 333개 과목을 매학기마다 과하고 있으나 이름의 중복을 피하면 212개 科目이 개설되어 있으며 유사 분야를 통합해 보면 97개 과목이 된다. 이를 영역별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전공의 기초 분야로서 경제학, 법학, 사회학, 행정학, 통계 등의 基礎의이며 지역개발학과 연관된 과목 등 9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로 專攻理論 분야로서는 계획이론, 지역경제, 지역사회개발, 지리학 등 관련 7개 과목이 있다.

셋째로 應用 및 方法論 분야로서 토지이용, 지역정책, 교통, 환경 및 실습 등 6개 과목으로 大別된다.

이상과 같은 경향은 다양한 교과목이 광범위

<표 1> 우리나라 지역 개발 관련 학과 현황

대 학	학 과	학 위	소 속 대	설립 연도	정 원	교 수
성결교신학교	지역사회개발	—	—	1976	80	4
영남대	지역사회개발	경제학	농축산대	1976	52	4(2)
대구대	지역사회개발	행정학	사회과학대	1976	104	9(3)
단국대	지역개발	행정학	법정대	1976	52	4(1)
청주대	지역개발	행정학	법정대	1979	52	4
강릉대	지역개발	경제학	산업학부	1979	52	6
목포대	지역개발	경제학	법경학부	1979	52	6
전남대	지역개발	경제학	경영대	1976	52	4
중앙대	지역개발	경제학	산업대	(1976)	39	4
				1983		
한남대	지역개발	경제학	경상대	(1976)	52	4(1)
				1979		

〈표 2〉 교과목 분야별 분류

분 야	과 목 분 야	과 목 명칭수	개 회 수	설 수 비 고
기 초	33	65	98	행정, 경제, 사회, 통계 분야
이 론	29	64	99	계획, 지역경제업 지론, 개론
응 용	35	83	136	지역정책, 실습계획
계	97	212	333	—

하게 개설되어 있어 地域開發學이 갖는 학문의 複合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공통성이 높은 과목으로는 지역경제학, 토지공법, 통계학, 조사방법론, 實習, 지역개발론, 도시계획, 농촌개발론, 계획이론, 토지이용 등이 있다.

### 3) 卒業生 社會進出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된 地域開發學科는 국토 및 사회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空間 문제 해결을 위한 經濟·社會計劃家의 육성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른 專門人의 需要는 制度的인 개선에 의하여 인력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의 수요에 대한 人力供給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勞動市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10 개 大學에서 약 450 명 이상의 졸업생이 地域開發學科에서 배출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勞動市場의 不在로 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 회사밖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는 많은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機會의 不在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로 전통적으로 空間計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既得權 守護에 그 원인이 있다. 工學的 지식을 가지고 社會科學的 접근 방법으로 공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존 집단의 固定 觀念은 자신들의 經驗形成過程을 盲信하고 있어서 시험 과목으로 아직도 工學 관련 과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科學的 지식만 갖춘 지역개발학과 졸업생은 선발 시험에서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둘째로 머지 않아 실시될 地方自治制는 공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계기가 되겠으나

지금까지 공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社會 分化에 따른 사회 유관 기관들의 적응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지역개발학과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부족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地域開發學科가 학문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 의욕구에 副應하고 있지 못한 원인은 졸업생의 사회 진출 기회 부족에서 기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應用社會科學으로서의 地域開發學은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死活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 4. 外國의 動向

외국의 地域開發學科와 유사한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 세기 英國의 計劃敎育과 1930 년대 美國의 大學院에서 과하기 시작했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와 유관 학과에서 그 발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西歐, 美洲, 호주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東歐圈에서도 地域開發學 유사 학과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만 해도 약 84 개 대학에서 약 5,000 명의 학생들이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으며 800 여 명의 교수가 이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 大學敎育의 성향은 西歐와 美洲의 경우, 좋은 시민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學科目보다는 유사 학과의 기초 과목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면서 전공 과목을 과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사회 진출도 다양하다. 外國의 大學에서는 地域開發學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로 불리우고 있다. 소속 대학에 있어서도 그 소속이 일정하지 않아 소속 대학과는 상관 없이 學科 中心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學位名稱도 도시 및 지역 계획 분야의 文學士와 도시 및 지역 계획 분야의 理學士로 수여된다. 이러한 현상은 地域開發學이 갖는 학문적 다양성과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理論的 實用性 때문이다.

외국의 地域開發 유관 학과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하나는 졸업 후 곧바로

로 職業을 갖는 직업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졸업 후 연구 및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知識 및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다. 4년제 대학에서 本 學科를 졸업하면 計劃分野의 국가 기관이나 개인 기업체에 취업하며 地方 行政府의 都市 및 地域計劃職에 진출하고 있다. 교과목에 있어서도 각 학과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목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敎科目 履修 現況을 보면 저학년에서는 經濟, 社會 과목을 비롯하여 計劃技法, 政策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학년에는 전공 실습을 비롯하여 計劃 過程, 環境, 交通, 住宅 및 社會計劃 분야의 과목들이 조화 있게 과해지고 있다. 외국 대학의 이러한 學問의 환경은 지금 우리나라 地域開發學科의 경향과 유사하다 하겠다. 학문의 導入 過程이 그러하듯이 교과목은 물론이고 敎授 內容에 있어서도 이들의 내용과 유사하겠으나 地域開發學이 대부분 大學院 수준에서 교육되고 있어서 學部 수준 학문적 영역으로의 '한국적 消化'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선진 외국은 社會 分化에 따른 勞動市場의 專門化가 이루어져 人力 需給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大學과 產業體 사이의 人力 需給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5. 地域開發學科의 課題

### 1) 學問的 課題

地域開發學科의 학문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地域開發學의 學問的 성격 究明과 아울러 한국적 土着化에 있다. 都市 및 地域計劃學이 학문적 모체라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으며 요구하고 있는 學問的 需要는 空間 問題만이 아니고 비공간적인 部間 計劃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을 消化하고 調和하여 우리 현실에 알맞은 韓國的 地域開發學의 정립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 부딪치고 있는 지역 문제의 성격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지역 개발 자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협소한 土地, 과밀 인구, 과도한 大都市 集中, 空間의 不均衡 등을 고려한 地域開發學은 서구

적인 理論과 計劃技法을 그대로 移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大學院 中心의 地域開發學을 어떻게 學部 수준에 알맞게 소화시키며 그들이 진출할 市場을 확보하느냐에 또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하겠다. 地域開發學 과목의 많은 부분이 先修 基礎理論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 문제의 경험이 없고 학문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현재 우리 地域開發學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이다.

### 2) 學事行政

지역개발학과의 당면한 학사 행정으로는 學位名稱의 통일과 소속 대학의 單一化 그리고 學問體系의 정립에 있다. 학위 명칭은 經濟學士와 行政學士로 나누고 있으나 동일 계통의 碩·博士學位는 都市計劃學으로 구분되고 있으니 學部 역시 大學院과 동일한 學位가 수여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서 학문 분야도 細分化되어야 하므로 地域開發學科의 학위 수여 명칭도 통일되어야 하겠고, 외국의 학문 분류와 같이 空間과 計劃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야는 都市 및 地域計劃學士가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소속 대학의 경우 經商系와 法政系 그리고 農業系로 나누어 소속되고 있으나 學問 性格上 동일 대학으로 통일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하다면 社會科學大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學問體系의 정립에 있어서는 都市 및 地域計劃에 그 학문적 근본을 두며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開發事業의 計劃과 管理 분야를 포함한 政策的 理論이 加味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地域開發學은 단순히 空間 問題만을 다룰 수 없을 것이며 社會·經濟的 計劃과 推進 能力을 현실적으로 기를 수 있는 지역 관리에 대한 학문 분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3) 卒業生 就業

地域開發學科는 설립된 지 10년을 넘고 있으나 전공과 연결된 일터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公共機關에서의 專門人力 受容에 따른 관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지역개발학도의 적정 기관에의 社會進出 문

제는 지역개발학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課題이다. 學生이 없는 學科는 생각해 볼 수 없을 것이며 사회의 需要가 없는 社會應用科學이란 그 存立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학의 학문적 성격상 졸업생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분야는 公共機關에서 開發計劃家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일이다. 현행 行政業務 중 에서 지역 개발 업무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行政職群內에서 都市 및 地域計劃職을 분리하여 행정의 專門化를 기하는 일이다.

다. 특히 地方自治制 실시에 따른 地域開發 需要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이러한 職群의 분류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公共機關에서 이렇게 訓練된 人力을 活用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地方 行政體系의 개편을 통한 地域開發課(局)의 신설로 효율적인 地域開發의 수립과 추진을 장기적으로 꾀나갈 수 있을 것이며 本 學科에서 양성된 전문 인력도 국가 발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

###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와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대학의 現職教授는 제외됨)

#### 2. 登錄方法

본 협의회의 소정양식 '教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 4. 接受處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